

천하제일사료

남원시 산동면과 천하제일사료의 아름다운 동행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전북 남원시 산동면과 제일사료주식회사는 4월 23일(화) 오전 11시 산동면사무소에서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는 기업과 농촌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우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연 아름다운 동행이라 할 수 있다.

산동면은 춘향 골로 이름 높은 남원시의 동북쪽에 위치한 산골마을로, 섬진강의 원류인 요천의 상류를 끼고 도는 비옥한 농토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예로부터 물 맑고, 산 좋고, 인심 넉넉한 고유의 세시풍속을 간직한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고, 대부분의 농촌이 그러했던 것처럼 산업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농업이 주산업이 되면서 낙후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정창호 산동면장, 제일사료주식회사 선양선 호남사업부장, 산동면발전협의 전평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 하여, 농촌이 FTA라는 큰 파고를 만나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과 직면해 있는 가운데 기업과 농촌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날 협약 식에서 남원 산동면장 정창호는 “도시민은 깨끗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받고, 자녀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며, 농촌은 안정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라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천하제일사료 선양선 호남사업부장은 금번 산동면과의 1사1촌 자매결연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하고, 우리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회사를 견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2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고 있는 천하제일사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인 사료 제조 기업으로 현재 국내 사료업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며, 기업운영에 있어 그 무엇보다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농촌 친화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창립 제24주년 맞아 “사회적 책임 강화” 결의와 환경정화 활동 가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지난 4월 18일 창립 제24주년을 맞이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창립 24주년이 되기까지의 기관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함께 공유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 결의문 낭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축평원은 “사회적 책임 강화” 결의대회를 통해 ‘존중과 배려,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축산물 품질평가와 이력관리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으로 축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임직원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다하여 대국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하였다.

최형규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까지 기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기침체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존중과 배려, 소



결의대회 전경



수리산 환경정화 활동

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이날 축평원은 부대행사로 경기도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경기도립공원 수리산 자연학교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결의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실시하였다. ☺